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 지역발전 투자협약사업 시범사업 본격 추진

✎ 김원중 기자 | ☎ 승인 2022.05.12 14:15



▲ 학교 공공급식지원센터 조감도 (사진=농어촌공사 홍성지사 제공)

[충청신문=홍성] 김원중 기자 = 홍성군과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은 '유기농업 가치확산을 위해 사회적 농업, 마을교육 기능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2019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공모사업에 선정돼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에서 시행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은 총사업비 155억여원을 투입해 홍동면 문당리에 자연생태마을 재조성하고 은하면 장척리

에 학교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공사 시작으로 흥동면 문당리 자연생태마을 조성이 금년도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학교 공공급식지원센터 조성은 금년도 준공을 목표로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다.

한편 향후 흥성군과 한국농어촌공사 흥성지사는 주민들의 의견들을 적극 반영 및 검토해 지역주민의 수요 충족은 물론 사업추진의 속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김원중 기자 wjkim37@dailycc.net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